

이솝우화보다 재밌는 불교이야기



어린이 팔만대장경 2·3 신현득 지음 | 현암사 | 각권 8500원

‘이솝우화보다 재미있고, 아라비 안나이트보다 신나는 불교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자타카’라고 불리는 <본생경>에는 547편의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으며, 교훈적인 이야기가 실려있다. 세상에 나온 지 15년만에 완성된 <어린이 팔만대장경>은 동화작가 신현득(동화작가가 숨겨진 팔만대장경의 비밀을 쉽고도 재미있게 표현하고, 이에 문조현(프린터스 일러스트레이터) 작가의 해학적인 그림을 더해 책의 완성도가 높다.

<첫번째 어린이 팔만대장경>이 1991년에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이후, 1992년엔 <두번째 어린이 팔만

대장경>이, 1994년엔 <세번째 어린이 팔만대장경>이 차례차례 발간되어 전 3권의 시리즈가 완성되었다.

이 책은 세대를 거쳐 부모가 아이 손에, 그 아이가 커 다시 아이 손에 전해 주어도 손색없는 주옥같은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장래에 어린이가 팔만대장경 의 모두 읽어 보겠다는 꿈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다.

저자인 신현득씨는 안동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20년간 중급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75년 한국일보 편집국기자를 거쳐 현재는 어린이를 위한 동시 동화를 쓰는데 전념하고 있다.

‘백유경’에 실린 우화 60가지 만화로



만화 백유경 김정철 지음 솔비버니 | 1만원

<백유경>은 원래 인도 서민들 사이에서 전래되어 오던 재미있는 아흔여덟 개의 교훈적인 우화를 모은 것이다. 인도 출신의 상가세나 스님이 5세기경 민중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던 이야기를 토대로 하여 수행에 귀감이 되는 교훈을 곁들여서 정리한 것이다.

범어 명칭은 우파마사타카 수트라인데 이를 한역하면 치화만이 된다. 어리석은 사람을 제도하기 위한 꽃다발이란 뜻이다.

즉 지혜에 아직 눈뜨지 못한 사람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유로써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경한 비유문학의 대표적인 경전이다.

이 책 <만화 백유경>은 <백유경> 원전에 나오는 우화 중에서 60가지 이야기를 가려 뽑아서 만화로 엮은 것이다.

소개되는 우화는 ‘연꽃 따러 갔다가 ‘소금만 먹은 사람’ ‘어리석은 도둑’ ‘말라 버린 소꿉’ ‘한 냥의 빛과 네 냥의 손해’ ‘스승과 두 제자’ ‘오두막집의 두 사람’ ‘증오심만 남은 사람’ ‘복주머니 속의 금화’ ‘호수에 빠진 술잔’ 등이다.

<백유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게다가 그들은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쉽게 화내며 남을 미워하기도 한다. 이 책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스꽝스러운 실패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해안을 제시해준다.

차·명상 즐기는 유치원생들

어린이 정서발달 돕는 ‘아동 차운명상’ 발간·보시



아이들을 위한 웰빙서 및 인성지침서라 할 수 있는 책이 출간되었다.

도서출판 하늘북에서 출간된 차와 명상을 통해 심신을 수련하는 법을 소개하는 <아동 차운명상>이 그것이다. 차운명상은 두 손은 찻잔에 배인 온기를 품고 아무것도, 얼굴은 그 감(罐)에 팔고루 썩고 녹아들고, 오로지 찻잔 속 차와 자신의 달은 듯 서는 듯 교감에 집중하면서 상념과 잡념들을 하나 둘 벗어던지고 마침내 차도 찻잔도 있고 자신마저 있어가는 명상수련법.

5세, 6세 유치원생들이 수련했으며 등장해서 수련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출간한 <아동 차운명상>은 서울 청



청룡유치원 원장인 정명 스님이 유치원생들과 차운명상을 하는 모습.

룡유치원 원장인 정명 스님이 다년간에 걸쳐서 아이들과 함께 차운명상을 하면서 수련한 결과물을 엮은 것이다.

책에는 차의 향과 모양을 보면서 음미하면서 집중력을 강화하는 ‘차운명상’, 호흡과 하나되는 주의집중체조명상 ‘도인호흡’, 신체를 바라보며 마음을 모으는 ‘정좌명상’ 신체를 바라보며 마음을 모으는 ‘정좌명상’ 등이 수록돼 있다. 또 신체발달을 도와주는 건강타법 ‘원기원체’,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는 미인차운법, 다이어트를 위한 통기차운법, 몸의 정화를 위한 단식차운법 등의 내용과 효과가 소개되고 있다.

이 수련서는 아이들의 주의집중력

훈련과 감기명상에 효과적이며, 정서교육에 좋은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책이 발간되자마자 정명 스님은 서울 시내 유치원 986곳과 교계 유치원 및 어린이 집 265곳, 어린이 병원이 이루어지는 곳 296곳에 <아동 차운명상>을 범공영 전문업체인 삼보제자를 통하여 범공영했다.

한편 정명 스님은 7월 27일~28일 미국 샌디에고 소재 불교문화센터에서 열린 여름수련회에 지도법사로 초빙돼 북가주 한인들을 상대로 미주 최초 차운명상의 모든 것에 대한 원정특강을 하고 돌아왔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생명은 모두 소중하구나



생명의 저울 김경호 지음 푸른나무 | 8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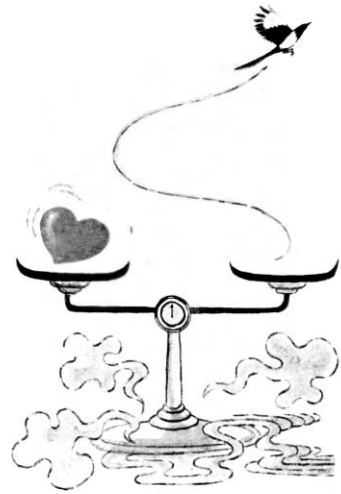
한 수행자가 길을 가다 배고픈 때에 습격당한 까치를 가슴에 품어준다. 배고픈 매가 자기도 이 까치를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고 항의한다. 그러자 수행자는 자신의 허벅지 살을 까지 무게만큼 도려 떼어주어 준다.

이렇듯 까치, 코끼리, 심지어 사람까지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저마다 덩치도,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다. 우리는 그 생명들의 몸무게를 저울로 달아볼 수 있을지언정, 생명의 소중함은 달아볼 수 없다(사진).

<생명의 저울>은 불교 경전에 실려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중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소중하고 평등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 16편을 뽑았다.

불교사회운동가인 김경호씨가 엮은 <생명의 저울>은 어린이들에게 생명이란 무엇이냐는 질문, 아름답게 추하듯 매우 소중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책에는 작고 힘 없는 동물이라도, 지위가 낮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이라도 생명이기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있다. 니이이다, 가라가, 우



파리, 쥐리판타카, 인드라 등의 수행자들을 통해 겸손과 부지런함,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과 배운 것을 실천하는 모습 등을 배울 수 있다.

이 책에 실린 이야기는 불교의 경전에서 가려 뽑았는데도 보편적 진리를 담아 종교적 냄새가 거의 없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면 읽을 수 있다.

김원우 기자

미국의 아동 심리학 박사인 조인스 밀스 박사가 직접 쓴 치유와 희망 이야기 동화책 2권이 나왔다. 조인스 밀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법으로 아동을 치료하는 전문가로, 연극 치료와 아동심리학 분야에 큰 공헌을 하여 국제 연극 치료상을 받은 심리학박사이다.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아직 정신적으로 약한 아이들에게 직접 설명하기 힘든 이야기를 풀어내었다. 개성 있는 캐릭터와 짜임새 있는 줄거리, 부드럽고 인상적인 그림, 간단한 치료법 등 아이의 반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해준다.

내 친구의 죽음 막을 수 없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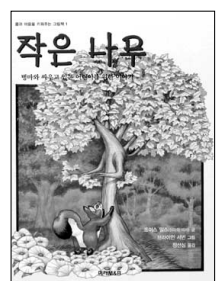


부드러운 버드나무 조이스밀스 지음 | 미래엠앤비 | 각권 9000원

<부드러운 버드나무>는 나무 마법사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죽어가는 부드러운 버드나무의 이야기를 통해, 아이가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과 ‘죽여가는 것’을 받아들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작은 나무와 아람이는 연못 건너편에 있는 부드러운 버드나무를 특히 좋아한다. 어느 날 부드러운 버드나무 위에서 놀던 아람이는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후 친구의 모습이 전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다. 나무껍질은 울퉁불퉁하고, 잎들은 누렇게 변해 있다. 걱정이 된 아람이가 나무 마법사를 불러오지만, 이번에는 나무 마법사들도 손을 쓸 수가 없다. 나무 마법사는 죽어 가는 친구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슬퍼하는 작은 나무와 다람쥐에게, 비록 친구의 병을 낫게 할 수는 없어도 이야기와 사랑으로 친구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병든 영혼, 사랑으로 치유하다



작은 나무 조이스밀스 지음 | 미래엠앤비 | 각권 9000원

<작은 나무>는 폭풍우 속에서 가지를 잃어버린 작은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 심각한 병에 걸려 두려움과 자책감, 그리고 걱정과 빠진 아이들이 평안을 되찾고 용기를 심어준다.

사나운 폭풍이 숲 속에 휘몰아쳤을 때, 다람쥐 아람이는 안전한 곳으로 숨어들어 간다. 그러나 뿌리박은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던 작은 나무는, 폭풍우 속에서 많은 가지들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사고를 당하거나 갑작스레 병에 걸린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자책감, 그리고 걱정과 빠지게 된다.

작은 나무가 걱정된 아람이는 나무 마법사 어루니와 만지니에게 도움을 청한다. 나무 마법사들은 ‘행복한 마법의 습취기’로 불안해하는 작은 나무를 진정시키고, 병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단계의 진찰과 나뭇잎 봉대를 이용한 수술로 작은 나무의 부러진 가지를 치료해준다.

부드러운 버드나무 / 작은나무

조이스밀스 지음 | 미래엠앤비 | 각권 9000원

yosiamun.com 추천도서

-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 신(新)유신학
- 목조선 입문
- 일연술 묻는다
-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 불광출판부, 무비스, 9000원
- 밀양, 고목, 1만2000원
- 석란, 김호귀, 1만원
- 현암사, 고운기, 1만5000원
- 오후에, 만공스님, 1만5000원
- 도서주문 (02)2004-8220

계룡산 대자암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

대승보살계(大承菩薩戒) 십중대계(十重大戒)와 사십팔경구계(四十八輕拘戒)는 출가비구와 재가신도를 막론하고 다 같이 수지하여야 할 계법입니다. 계(戒)는 하늘을 오르는 사다리와 같고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으며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계를 지키면 어두운 곳에서 불빛을 만납고 같고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은 같고 병난 이가 쾌차함과 같고 갇혔던 죄수가 풀려남과 같고 멀리 집나간 이가 돌아옴과 같나이다 (범왕경)라고 하셨습니다. 금번 대자암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제사 송광사 총림 방장 보살대화상을 모시고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를 봉행하오니 무루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 법회안내
 > 보살계 수계법회 : 윤달 음, 7월 25일 (양 9월 17일)
 > 접수마감 : 윤달 음, 7월 15일 (양 9월 17일)

계룡산 감사 대자암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2번지
 전화 041)857-5880 / 팩스 041)857-5215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텅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정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북 043-647-2378, 011-467-1472

영터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끔한 일침!!!

“귀신을 다루는 사람이 돈벌이에 치중하고 명예를 구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빙의의 시대

돈벌이만 쫓는 빙의 전문가, 귀신 쫓는 것만을 능사로 아는 반쪽자리 퇴마사들, 인간과 귀신에 대한 따뜻한 마음 없이는 빙의를 말하지 말라.

서울출판 Tel. 02-313-5047 Fax 02-393-9696/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지은이/ 일광(逸廣)
 '도인(道人)의 길'은 오로지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어느 여인이 정중하게 말했다.
 '선생님처럼 치료하면 남들이 믿겠습니까? 주소한 죄가서 사흘 만에 병을 고쳤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젠 제물도 갖추고 하다못해 기도드리는 시농이라도 해야지 남들이 믿지요.'
 하여, 그건 그렇다. 하지만 이미 물욕(物慾)을 접어둔 선생은 사람들에게 걸린 귀신이나 천도해주고 또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조용히 살고자 한다. 그렇게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도인의 길이기도...

신국판 / 312쪽 / 9,500원